

월/요/광/장

윤병갑



오늘도 필자는 가족들의 달갑지 않은 시선을 멀리하고 여느 때처럼 방송 채널을 돌리고 있다.

발전시키겠다는 비전과 목표를 확실하게 제시할 때 그 정통성과 정지함이 예상 밖의 선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경제기사와 친해져야 하는 이유

보면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든다. 그렇다. 차기정부를 이끌어갈 최고 리더를 선출하는 대선, 4년 만에 개최되고 있는 런던올림픽, 우리 지역 연고의 기아 타이거즈 야구, 광주프로축구단의 경기 결과에 대한 기사는 분명 흥미 거러이면서 관심사이고 읽어야 할 기사임에 틀림없다.

는 영향과 같은 경제기사를 보면 자신의 일이나 생활과는 동떨어진 그래서 경제문제는 경제전문가들이 풀어야 할 내용이고 그들의 몫이라는 그동안의 사회분위기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필자를 비롯한 일반독자들도 일상생활과 재테크에 정보가 되는 부동산, 세금, 유통, 자동차, 투자정보 증권에 관한 기사에 한정되었다면 이제는 물가와 경기 동향은 두말할 것도 없다.

기고



박재현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인 2012 런던올림픽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광주선수단은 임원 3명, 선수 6명 등 총 9명이 런던올림픽에 참가해 광주시청 소속인 양궁 기보배 선수가 개인·단체전에서 2관왕을 하였고, 광주체육중·고를 졸업한 양학선 선수가 올림픽 사상 최초로 체조 도마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런던올림픽이 주는 특별한 교훈

철저히 분석해 3년 앞으로 다가온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런던올림픽은 역대 올림픽 중에 '친환경 올림픽'이라는 명성에 가장 근접한 올림픽이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역시 'Ecoversiade(친환경)'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보고 배우아야 한다. 런던올림픽 메인스타디움은 쓰레기 매립지였던 리 벨리오가 지어졌고, 경기장 의자는 폐가스관을 활용해 만들어졌으며, 시설공사에서 나온 폐자재 98%가 재활용되었다. 선수촌 역시 경기장 가까운 곳에 만들어 선수들이 걸어나다도록 해 온실가스 비율을 최소화했다. 한가지 더 주목할만한 점은 '사후활동'에도 신경을 썼다는 점이다. 핸드볼 아레나나 수영 핸드볼 경기장 끝나면 근대 5종 펜싱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대회가 끝난 후 이곳에서 철거되어 나온 자재는 2016 하계올림픽 개최지인 리우데자네이루에 530억여원에 판매한다고 한다. 수구경기장인 워터폴로 아레나 역시 지붕은 재활용 쿠션으로 만들었고, 대회가 끝나면 건물이 해체되며 각종 자재는 다른 건설 현장에서 재활용된다. 이외에도 8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메인스타디움은 2만5000석 규모의 경기장으로 변경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의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얘기된다. 2009년 G20정상회의가 열렸던 '엑셀런던', 각종 공연과 전시회 용도로 '얼스 코트' 등 기존의 복합공간을 경기장으로 최대한 활용한 점이나 유럽 최대의 소풍물인 '웨스트필드 스트랫퍼드 시티'를 올림픽 공원 옆에 마련해 올림픽 공원 방문객의 70%가 이 쇼핑장을 거쳐가게끔 만든 반짝 아이디어들은 올림픽을 세 번이나 개최한 경험을 토대로 한 적자 올림픽을 만들지 않겠다는 런던의 결연한 의지로 볼 수 있었다. 대회 운영적인 면에서 몇 가지 살펴보자면, 현대 메가스포츠허브 성공의 열쇠 중 하나는 국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런던올림픽 개막식의 대미를 장식했던 비틀즈의 폴 매카트니를 비롯한 영국의 록가수들은 출연료로 단 1파운드(한화 1800원)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봉사자도 역시 보수도 받지 않고, 때로는 자비로 숙비를 해결하면서까지 열성적으로 일할 정도로 런던올림픽에 대한 영국인들의 관심은 대단했다고 한다. 물론 세 번이나 올림픽을 개최했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실수도 많았다. 런던올림픽을 직접 보기 위해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이 표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농구, 배구 등 일부 종목 경기장은 객석이 텅텅 비고 심지어 객석에 임의로 메우기 위해 군인과 학생들이 동원되어 빈석을 샀다. 국제올림픽 위원회와 종목별 국제 연맹, 후원사 등에 미리 배정

점인 것이다. 왜냐하면 농경사회를 거쳐 산업사회의 틀을 벗어나 정보화 사회와 글로벌경제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가계경영의 패러다임으로 사고 전환이 필요로 하는 시점이기에 그렇다. 국가경영이 결국 기업과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1997년 IMF를 통해 경험하지 않았던가. 스페인 등 유럽경제위기확산이 우리 경제와 기업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서고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이다. 또 최근의 가계부채와 부동산대책을 비롯한 내년 세계 개편안에 대한 기사에 대해 친숙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글로벌경제와, 국가경제 기업, 가계가 하나의 틀 나뉘지 않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하나의 완제품을 생산해 내는 시스템적 사고와 두 명 이상이 모여서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기체라는 조직적 개념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그 핵심이 바로 일반국민이기에 경제기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친숙해져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제생산업부 호남지역본부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여수박람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세계 최초로 인구 30만 중소도시에서 열렸던 여수세계박람회가 12일 오후 7시30분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BIE(국제박람회기구) 로세르 탈레스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폐막식에서 김동산대장을 비롯한 내년 세계 개편안에 대한 기사에 대해 친숙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글로벌경제와, 국가경제 기업, 가계가 하나의 틀 나뉘지 않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하나의 완제품을 생산해 내는 시스템적 사고와 두 명 이상이 모여서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기체라는 조직적 개념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그 핵심이 바로 일반국민이기에 경제기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친숙해져야 한다는 얘기다.

지역경제 위축, 뒤늦은 관광객 유인책 마련 등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 게다가 사후활동 대책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수박람회는 이제 끝이 아니다. 박람회장 사후활동은 단지 유통의 미를 거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박람회를 30년 동안 이끌 수 있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다라서 정부는 박람회장 일대를 해양 레저관광산업 중심의 관광특구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하여 용이한 투자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남해안 발전을 견인할 국책사업으로 해양 관련 첨단 연구 및 산업시설을 유치하고, '여수선언'을 구체화해야 한다. 여수세계박람회는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지나치게 민간자본에 의지하지 않고 정부가 뚜렷하고 책임있는 정책과 재원 확보로 사후활동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폐업상태 업체에 '교육 미이수' 과태료라니

광주직약청이 '위생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무분별하게 하고 있어 반쪽을 사고 있다. 실제 영업여부에 관계없이 폐업신고가 없으면 무조건 과태료를 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직약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광주·전남 광 관련 업체 126개소에 대해 모두 2607만7200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이 미납되고 있다며 최근 납부 독촉 공고를 냈다. 해당 업체들이 법규상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이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직약청은 적발된 지 이미 5~7년이 지났지만, 과태료 미납에 따른 체권소멸 방지를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것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직약청의 과태료 통보 받은 업무 기관이 전 것으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소득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폐업 유도 등 통용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과거 제3후보들과는 그 존재감이 사뭇 다르다. 중도층과 2040세대의 폭넓은 지지도 감점이 있다. 반면 정치 경력이 부족하고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한계로 꼽힌다. 대선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온 현재 안원장은 출마 의지는 큰 구체화했지만, 최종 결심은 유보해놓은 상황이다. 범야권 연대나 신당 창당, 무소속 출마와 함께 불출마 선언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얘기가 다. 더 이상의 속고는 지켜보는 국민을 지지해 할 수 있다.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를 두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법조칼럼



손상옥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서는 우리 민족을 활잘 썰고 술, 노래와 춤을 즐기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다. 필자의 주위를 둘러보아도 술 마시고 노래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많다. 정확하게 말하면 술을 마신 후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 것이지만, 민족의 기질이라는 것이 유전자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술을 즐겨 마시기 때문에 우리는 술에 대해 관대한 경향이 있다. "술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없다." "사람이 술 한잔 먹고 그럴 수도 있지 뭐"라는 식의 말을 심심치 않게 듣는다. 정확히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술에 대한 관대함에 기대는 현상이 법정에서도 벌어진다.

술 마시는 것에도 책임이 따른다

로 때린 사실을 인정하나요? 피고인:네,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시 술을 많이 먹어서 때린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검사:기억이 안 나면 일을 인정한다는 것이요? 피고인:정황상 제가 때린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검사:피해자의 말로는 당시 피고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피고인이 발언이 부정확하거나 말을 잘 가누지 못하지 않았고 술이 많이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피고인:당시 제 주량을 넘겨 먹어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장면 2 검사: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나요? 피고인: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검사: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차례 때린 후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나요? 피고인:그렇게 진술한 사실 없습니다. 검사:그렇다면 조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를 당시의 상황, 방법, 시간 등이 자세히 기재돼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피고인: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을 마음대로 적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인가요? 피고인:(묵묵부답). 검사:피고인은 조서를 읽어 보고 서명, 무인하지 않았나요? 피고인:읽어본 것은 사실입니다. 피고인들은 종종 법정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법적으로 '심신장애'에 의한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 주장으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거나 경형을 감경한다. '심신장애', 즉 술에 취해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 즉 사리를 분별할 수 없거나 분별할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에서의 행동에 대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필자도 술을 마시고 소위 필름이 끊어진 경험이 있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많은 피고인들은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면서도 기억이 가장 감퇴할 수 있는 범행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당시를 자세히 묘사했음에도 법정에서는 들었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피

된 '올림픽 패밀라'임자권 대수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표를 구하지 못한 관광객들에 대해 런던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매진이라는 입장만 고수하니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의 원성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주요도로에 '올림픽 레인' 만들어 가뜩이나 좁은 도로는 더욱 좁아져 극심한 교통난이 빚어졌다. 지하철도 혼잡하고 요금마저 비싸 세계인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올림픽은 정치적인 상황을 배제하고 순수한 스포츠정신으로 공정과 화합을 만들어 내는 대회이냐, 레바논 유독팀이 이스라엘팀과 한 매트에서 연습하기를 거부해 칸막이를 설치해 연습하는 등 여러 국가들이 장외 신경전을 벌여 공존과 화합의 가치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와 북한도 마찬가지로 경기력 측면에서는 여자 올림픽보다 나은 성적을 보였으나, 남북 선수단이 장외에서 만나 반감게 인사를 나누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들지 못했다. 앞서 언급한 런던올림픽은 우리에게 타산 지적으로 삼을 거울과 같은 대회였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역대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준비 단계에서부터 런던올림픽이 보여준 교훈들을 각별히 새기고, 철저히 분석해 나가야만 한다. 특히 타 스포츠대회와는 다르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Peaceversiad(평화)'로 남기기 위해서 남북단일팀 구성은 필수조건이라 생각한다. 2015년 민주, 평화,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작은 통일을 기대해본다. <광주국제대학 사무원>

해자의 진술,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도 술에 취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였는지는 피고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필자로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많은 피고인들이 거짓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고 법원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신체의 자유 박탈이라는 절박한 사태에 몰려 자신의 주장이 매우 비이성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어차피 손해 볼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다. 술에 취해 방어 변호하지 않거나 명백하고 단지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실히 보이는데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피고인이 측은하기도 하다. 최근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른바 '주취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술에 의한 범죄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필자로서는 반기문 일이 아닐 수 없다. 술은 기본 좋게 마시되 도를 넘은 음주로 인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지검 형사부 검사>

無等鼓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제3후보들이 의미 있는 변수로 등장한 것은 지난 1992년 14대 대선 때부터다. 당시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은 양당 구도의 틈바구니에서 통일국민당을 창당해 '아파트 반값 공금'과 경제·통일 대통령을 내세우며 16.3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3당 합당에 동참하지 않았던 박찬중 전 의원도 신정당을 만들어 '세대교체'를 구호로 6.37%를 얻었다. 두 후보의 득표 수는 540만 표에 육박했다. 1997년 대선에서는 신한국당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박빙의 고배를 마신 이인제 후보가 국민신당을 창당해 '혁신'을 주창하며 19.20%(492만5591표)를 얻었다. 2002년에는 월드컵 4강 신화 덕분엔정몽준 의원이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하지만 노무현 후보와의 아련 후보단일화에서 패배 보선 무대를 밟지는 못했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깨끗한 기업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5.82%를 득표했다.

제3후보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대표전화 222-8111-2200-551
광고문의 062-227-9600